

‘코로나 3차 유행’ 소상공인 매출 쏙 빠졌다

전남, 11월 3주 카드매출 22.54%·4주 21.84% 하락 확진자 많은 순천 이달초 30.13% 떨어져...광양도 타격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최근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전남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순천의 타격이 가장 컸고, 광주도 매출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는 등 경제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올해 49주차 전남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19% 하락했다.

앞서 전남은 47주차(11월16~22일) 22.54%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매출 하락세를 보인 것에 이어 48주차(11월23일~29일)에는 21.84% 떨어지면서 서울(30%↓)·경기(23%)·인천(2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매출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순천은 49주차 전년 대비 30.13%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47주차 37.28%와 48주차 33.06%에 이어 최근까지 30% 넘는 매출 하락을 보이면서 지역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의 경우 지난달 12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이달 2일까지 매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지역 경제가 극심하게 위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인근 지역인 광양 역시 같은 기간 34.35%→26.4%→21.74% 등 매출 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는 회식·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으면서 47주차 20.22%에 이어 48주차 35.87%까지 확대됐고, 49주차 27.17%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을 면치는 못했다. 광주는 47주차 23.24%, 48주차 26.81%, 49주차 18.95%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지역 매출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구는 같은 기간 23.24%, 26.81%, 23.48% 감소로, 광주 타지지역에 비해 매출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3차 유행까지 겹치자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동규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의 박탈감을 만회해줘야 한다”며 “당장 내년 봄부터 본격화될 대출 연체 대란을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6.46 (-9.01)
↑ 코스닥	921.70 (+7.89)
↑ 금리(국고채 3년)	0.973(+0.007)
↑ 환율(USD)	1087.70(+2.90)

광주은행 만족도 조사 31일까지 ‘행복드림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0일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에 ‘행복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행복드림 서비스’는 기존에 전화 통화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던 방식과 달리 영업점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한 고객 중 마케팅 수신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알림톡)을 이용해 설문링크를 발송한다.

설문링크를 받은 고객은 직원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등 5가지 항목 중에서 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고객은 직원에게 구체적인 칭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전화 통화 방식에서는 고객과의 통화가 어려운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행복드림 서비스’ 시행으로 카카오톡(알림톡) 설문링크를 받은 고객이 편한 시간에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고객의 편의와 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고객 의견을 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어 칭찬의견에 대한 동기부여와 개선사항 의견에 자가점검하는 등 임직원의 자기진작과 칭찬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광주신세계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산타 원정대는 광주신세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나 보육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발대식은 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신세계는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비와 임직원 희망배달기금 등 1억25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역 내 50가구에 연탄 2000장과 난방유 5000ℓ 등을 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 시그니처 와인 첫 선
롯데마트 직원들이 롯데그룹의 첫 번째 시그니처 와인인 ‘트리벤토 리저브 리미티드에디션 말벡-카베네 말벡’(1만900원) 2종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 유통 계열사 물량을 통합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으며,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와 인과 함께 먹기 좋은 포크립, 훈제 삼겹살, 소시지 등으로 구성된 ‘숯불 바비큐 와인 플래터’를 9000원 대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한전, 스타트업 302곳 매출 3079억 성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최근 4년간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302개를 육성해 누계 매출액 3079억원, 투자유치액 550억원, 623개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2월 공기업 최초이자 전국에서 19번째로 빛가람 혁신센터를 개소해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플랫폼 스타트업인 ㈜솔라커넥트는 창업 3년 만에 연 매출액 420억원, 투자유치 300억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77개를 창출했다.

스타코프㈜는 한전과 협업해 지난 4~6월 220V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으며, 플렉시블 배터리 개발에 성공해 차세대 배터리 업계 리더로 성장한 ㈜리베스트 역시 빛가람 혁신센터가 육성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빛가람 혁신센터는 이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KEPCO 에너지 스타트업’과 비대면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선정된 KEPCO 에너지 스타트업은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공모해 서류 및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사 중 42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빛가람 혁신센터는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 ▲기업별 2년 동안 최대 2억원 한도의 자금 지원 ▲빛가람 혁신센터 입주 오피스 제공 및 한전의 실증 시험 센터 이용 ▲한전의 특허 기술 활용과 분야별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강소 수출기업으로 계속 성장해나갈도록



한전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투자기관 연계, 창업 유망기업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미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 상

품화와 산업 연계 과정을 지원하고, 에너지밸리 내 기존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 기술혁신대전 개최 내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내년 1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까지는 참가 기업 관계자가 상시 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라이브 데이’로 운영된다. 참가 기업과 바이어 간 화상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혁신제품을 시려는 공공기관을 연결해주는 구매 상담회도 진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실제 전시장 못지않게 구현한 이번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19로 막혀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비즈니스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은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조선의 시인 허남설현

하늘 꽃 한 송이, 너는